

다문화 청소년의 생활경험 지각에 관한 질적 연구: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박 은 민¹⁾

동신대 상담심리학과

본 연구는 한국에서 출생하여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 청소년과 다문화 담당 교사들을 대상으로 다문화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생활경험 탐색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다문화 청소년 대상으로 현장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다문화 청소년을 문제 집단으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문화 배경 차이를 인정하고 다양성을 이해하며 이들이 가진 자원과 부족한 측면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중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청소년 9명에 대해 심층면접을 실시하였으며, 다문화 담당 교사 10명에 대해서는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다문화 청소년 면접 자료는 현상학적 연구방법인 Colaizzi 연구절차에 따라 자료를 비교분석하였으며, 교사 대상으로는 자기보고식 설문조사 실시 후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를 범주화한 결과 농촌 거주 다문화 청소년 경험은 3개 범주, 6개 주제군, 22개 주제였다. 농촌거주 다문화 청소년들의 생활경험 지각 3가지 범주는 ‘다문화 관련’, ‘주변 생활관련’, ‘미래 관련’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다문화 청소년 관련 정책 방향성과 지원 방안에 대한 제언을 하였다.

주제어 : 다문화 청소년, 생활경험 지각, 문화적 다양성, 현상학적 방법

* 2012년도 정부(교육부)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2S1A5A8024110).

1) 교신저자 : 동신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조교수 (E-mail : empark@dsu.ac.kr)

I. 서론

본 연구는 우리사회에 증가하는 다문화 청소년들의 생활경험에 대한 지각과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수행되었다. 다문화 청소년 연구는 다문화라는 배경 특성 이해와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편견을 배제한 접근이 바람직하다. 김근영, 박금주, 배소영(2009)은 국내 다문화가정 연구 대부분이 부정적이고 위험집단이라는 것을 부각하고 있으나 최근 미국 내 학자들을 중심으로 다문화 경험의 긍정성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다문화 청소년들을 ‘문제 집단’으로 구별 짓기보다는 독특한 경험이나 문화배경 차이로 일반 청소년 집단과 다를 수 있음을 존중하며 다문화 청소년들이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들이 자신의 다문화 배경을 어떻게 생각하고 자신의 생활 경험을 어떻게 인식 하는지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분석하고자 한다.

한국사회는 현재 국제결혼 증가, 탈북자 증가, 외국인 노동자의 빠른 유입으로 전통적 단일민족 사회가 아닌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 이러한 다문화 사회 진입에 따라 다양한 배경을 가진 다문화 가정들도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다문화 가정 자녀는 외국인 노동자 자녀와 새터민 자녀 같이 중도에 우리나라에 입국한 경우와 국제결혼으로 태어난 자녀 같이 한국에서 태어나 자란 경우로 나뉜다(양미진, 이동훈, 고흥월, 김영하, 남현주, 2012). 모두 다문화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각자 배경에 따라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에는 차이가 있다. 중도 입국 청소년들은 이주 후 적응과정에서 문화 충격으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반면(김순규, 2011),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에서 출생한 다문화 청소년들은 언어 문제는 없지만 다른 피부색으로 인해 배척을 경험하고 있다. 그러므로 다문화 가정을 하나의 집단으로 간주하기보다 다문화 발생 배경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이후부터 결혼이주여성의 유입 및 국제결혼의 보편화로 다문화가정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3년 현재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여성은 중국 이주여성(7,036명)이 가장 많으며 두 번째는 베트남 이주여성(6,586명)이며 필리핀 이주여성(2,216명), 일본 이주여성(1,309명) 순이다(여성가족부, 2013). 다문화가정이 증가한 초기에는 언어문제, 환경적응 문제, 다문화 구성원이 겪는 정체성 혼란 등의 사회문제가 발생하였으며, 특히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학교 부적응 문제가 나타났다. 국제결혼 가정 자녀 재학여부 실태 조사를 처음 실시 한 2006년 기준 9,389명 재학생 중 중·고등학생이 1,479명으로 15%를 보였으나 2013년 기준 재학생이 46,954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중·고등학생은 13,162명으로 29%를 차지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3). 이는 2006년 대비 2013년 중·고등학생 비율이 9배로 증가하였다. 향후 청소년 비율이 더욱 가파르게 증가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자녀가 청소년기 발달단계로 접어들어 다양한 위기 상황에 노출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다문화 청소년 증가는 다문화 사회 이해

와 다각적인 측면에서 다문화 청소년을 이해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하지만 다문화 자녀 관련 선행연구 대부분은 자녀들의 언어발달 장애, 학습 부진, 학교 부적응, 정체성 혼란 등 부정적 측면을 보고하고 있다(정혜영, 정옥분, 2011).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특수성과 개별성을 면밀히 고찰하거나 긍정적, 부정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포착하기 보다는 부정적 측면이 현저히 부각되어 편향된 시각만을 제시하고 있다. 전경숙, 정기선, 이지혜(2007)는 다문화 가족 자녀들의 수업참여도가 낮고 학업성취도가 떨어진다고 우려한 교사 비율은 28.1%로 긍정적인 대답 비율이 훨씬 높았으며, 정일선(2006)의 연구에서도 다문화 자녀를 책임지고 있는 유치원교사와 학교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다문화 자녀들과 일반 아이들을 비교해 본 결과 전체적인 학습 성취도에 차이가 없다고 대답한 교사가 67%였다. 유룡(2008)의 연구에 따르면 다문화 청소년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는 공부와 학업문제가 39.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 청소년들도 일반 청소년들과 동일하게 학업 문제에 대한 고민이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다문화라는 배경 특성과 청소년기라는 발달 특성을 동시에 고려한 심층적 이해가 필요하다.

사회에서 다문화 자녀들에 대한 인식은 결핍된 존재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어 다문화 자녀들은 정체성 형성 시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여 사회의 주변인으로 전락하여 역량을 발휘할 기회가 없다(주영신, 이민창, 2012). 이와 같이 다문화 관련 연구는 부정적 측면이 현저히 부각되는 시각만을 제시하고 있다. 다문화

청소년은 자신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부정적 인식과 차별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경험하며(Chavez, Moran, Reid, & Lopez, 1997),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학교생활과 더 나아가 심리사회적 발달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노충래, 홍진주, 2006). 따라서 다문화 자녀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문화 자녀에 대한 편향된 시각이 개선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다문화 청소년들이 사회 주변환경과 다문화에 대한 측면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확인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정은희(2004)는 아동 연령이 어릴수록 언어 습득 장애 비율이 높았으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생활연령에 부합되는 발달을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것은 다문화가정 자녀들 적응 문제가 시간에 따라 긍정적인 융통성을 보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양순미, 2007). 또한 농촌 거주 다문화 여성들의 평균 학력은 고등학교 중퇴 이상으로 남편들의 평균 학력인 중학교 중퇴에 비해 높았다(양순미, 2006). 이와 같이 상대적으로 높은 여성결혼 이민자들의 교육수준은 농촌지역 다문화 자녀들 성장과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농촌 부모의 낮은 사회경제적 수준이 다문화 자녀들의 성장과정에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선입견일 수 있다. 그러므로 다문화 청소년들도 일반청소년들과 같이 동등하고 통합된 인격체로 존중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다문화 자녀 전체를 언어발달과 학업능력에 문제가 있는 집단으로 규정하고 정책을 마련하

는 현재의 논의 구조는 바뀔 필요가 있으며 (김이선, 2009), 이 같은 편향된 시각으로 불편감을 느끼며 성장한 다문화 청소년들이 미래에 갖는 기대를 확인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많은 연구들은 다문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다문화 아동과 청소년을 혼합하여 실시한 연구들로 청소년기에 접어든 다문화 중학생만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김근영 외, 2009; 이영주, 2009; 이창호, 2008). 향후 가파르게 증가할 다문화 청소년들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다문화 청소년들에 대한 일반화된 결론을 부정적으로 내리기 보다는 다문화 배경과 다문화 청소년 개인의 특성과 발달 정도 등에 초점을 두어 긍정적 자원과 보완할 측면을 종합적으로 포착하여 접근하는 시각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에서 출생하여 농촌지역에 거주하며 중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청소년들이 생활 속의 경험과 다문화에 대한 경험을 어떻게 지각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다문화 청소년들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다문화에 대한 편견을 배제하고 객관적 입장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다문화 청소년들의 경험을 이해하고 이들이 지닌 강점과 자원을 찾고 부족한 점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는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폭을 넓히고 사회 제약 속에서 성장하는 다문화 청소년들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필요성과 목적에 근거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다문화에 대해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가?

연구문제 2.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다문화와 관련된 주변 환경을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가?

연구문제 3.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미래에 대해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참여자 선정

본 연구에서는 연구주제 및 목적에 가장 적절하고 풍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참여자를 선정하기 위해 의도적 표본추출(purposive sampling) 방법을 사용하였다. 다문화 청소년 연구 참여자 선정 기준은 첫째, 어머니가 결혼이민자로서 다문화 자녀이고 둘째, 한국에서 출생하고 성장한 다문화 자녀로서 일반 중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이며 셋째, 자신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다문화 청소년이다. 교사 참여자 선정 기준은 다문화 청소년을 담당하는 중학교 교사이다. 연구 참여자는 다문화 중학생 9명과 다문화 중학생 담당교사 10명으로 참여자 모두 전남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다. 연구자는 다문화 관련 단체를 방문하여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설명한 후 연구기관으로부터 중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청소년들을 추천받았으며, 중학교 다문화 담당 선생님을 추천받아 진행하였다. 다문화 청소년들의 어머니 출신국은 필리핀, 일본, 중국으로 이들은 전라도 지역에 현재

많이 살고 있다. 베트남 출신 어머니는 전라도 지역에 분포되지 않아 포함시키지 않았다.

2. 연구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의 경험적 내용이 매우 자세하게 기술되기 때문에 대상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와 면담을 시작하기 전에 연구목적과 방법, 연구자들에 대한 소개와 연락처, 연구 참여에 대한 참여자의 자발성, 연구 참여를 중단할 수 있는 권리 보장, 비밀유지를 위한 익명 처리, 면담내용의 녹음 등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었다. 또한 녹음된 면담내용 필사 시에 대상자들의 이름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특정 기호로 표시하며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3. 자료수집

본 연구 자료수집 기간은 2012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6개월이었으며 다문화 청소년들에게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심층면접은 본 연구자가 개방적이고 반구조화 질문을 통해 연구참여자로 2-3시간 정도씩 2-3회 실시하였다. 자료수집은 연구현상에 대한 풍부한 이해를 위해 참여자들로부터 더 이상 새로운 자료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수집하였다. 연구 참여자에게 사전에 전화로 연구목적을 확인시킨 후 면접을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명은 면접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내 연구 자료분석에서 제외되었다. 모든 면접 자료는 녹음되었으며, 면접이 끝난 후 바로 전사되었다. 다문화 담당 교사 10명에게는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반구조화 질문지는 다음과 같다.

- 다문화 청소년으로 경험하는 학교생활은 어떻습니까?
- 다문화 청소년으로 경험하는 친구 관계는 어떻습니까?
- 다문화 청소년으로 경험하는 부모 관계는 어떻습니까?

표 1. 다문화 청소년의 인적 배경

사례	성별	나이	학년	어머니 국가	아버지나이	어머니 나이	경제적상태
사례 1	여	13	중1	필리핀	50	40	하
사례 2	남	15	중3	일본	59	50	중하
사례 3	남	16	중3	필리핀	52	47	중
사례 4	여	16	중3	필리핀	52	55	중하
사례 5	남	16	중3	필리핀	49	42	중
사례 6	남	16	중3	일본	56	47	중하
사례 7	남	14	중1	일본	48	46	중
사례 8	남	15	중2	중국	47	36	중하
사례 9	여	15	중2	중국	51	45	중하

- 다문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 다문화 청소년으로 성장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 다문화 청소년으로 살아가면서 불편한 점은 무엇입니까?
- 미래 인생에 대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4. 자료 처리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청소년들의 경험을 파악하기 위해 질적 연구방법 중 Colaizzi(1978)가 제시한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Colaizzi(1978)의 분석방법은 연구참여자 각 개인의 독특성보다는 참여자 전체의 공통적인 속성을 도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다문화 청소년들의 경험을 파악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연구방법이다. 분석 자료에 대한 해석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연구자와 박사 2인이 분석 자료 검토와 합의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다. Colaizzi 분석방법에 따라 다음의 6단계를 거쳐 자료를 분석하였다(신경림, 조명옥, 양진향, 2005). 1단계에서는 다문화 청소년들의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심층면접 후 필사한 내용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읽었다. 2단계에서는 참여자의 진술에서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의미 있는 문장이나 구를 선택하여 의미 있는 진술을 도출하였다. 3단계에서는 2단계에서 도출한 의미 있는 진술을 일반적이며 추상적인 진술로 바꾸어 의미를 재구성하였다. 4단계에서는 이와 같이 구성된

의미를 주제(theme)와 주제 묶음(theme cluster)으로 분류하여 범주를 조직화하였다. 5단계에서는 분석된 자료를 주제와 주제묶음에 따라 경험의 의미들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6단계에서는 선행단계에서 확인된 경험 현상의 공통적인 요소를 통합하여 본질적 구조를 기술하는 최종적인 타당화 단계를 거쳤다.

다문화 청소년 담당교사 질문지는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교사들이 인식한 다문화 청소년 평가 응답내용을 수량화시켜 분석할 수 있는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분석단위는 하나의 문맥을 하나의 항목으로 간주하였고, 원자료를 여러 번 반복해서 검토하는 절차를 통해 그 내용에 익숙해진 후 각 세부 개념에서 출발해서 큰 범주로 묶어가는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내용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하위범주를 구성하였다. 각 하위 범주와 상위 유목간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연구자와 박사 1인 등 총 2인의 평정자가 검토하는 과정을 가졌다. 총 2인의 평정자간 일치계수(coefficient of agreement)를 구하기 위해 수집된 자료를 두 차례 평정한 결과 Fleiss의 가중 Kappa 계수 .904, .896이 각각 산출되었고 평정자간 일치도가 안정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III. 결과 및 해석

본 연구에서 다문화 청소년들이 보고한 의미진술은 총 444개였으며, 3개 범주, 6개 주제군, 24개 주제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주제군과 주제는 표 2와 같다.

1. 다문화 청소년의 다문화 주변환경 자각

주제군 1은 다문화 청소년의 다문화 주변환경 자각으로 ‘배척과 거부’, ‘긍정적 관심’, ‘지나친 관심과 혜택’ 주제를 포함하고 있다. 다문화 청소년들은 이질적인 문화요소를 가지고 태어났으며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다문

화 관련 영향을 받았다. 본 연구에 참여한 다문화 청소년들은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 자각 결과가 개인에 따라 달랐다.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왕따를 경험하거나 거부당하며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배척당하여 박탈감을 느끼며 상처를 받았다.

“초등학교 때는 피부색이 다르고 왕따를 시켰어요.”(참여자 1)

표 2. 다문화 청소년의 경험

6범주	주제군	주제	의미진술
다문화 관련	다문화 주변환경 자각	· 배척과 거부 · 긍정적 관심 · 지나친 관심과 혜택	· 초등 때 피부색이 다르다고 왕따 시켰어요 · 선생님이 잘 챙겨주시고 좋아요 · 선생님이 다문화라고 신경을 많이 써 주시는 데 싫어요. 신경 안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문화 정체성 자각	· 무관심 · 부담스러움 · 양가감정	· 내가 다문화인지도 몰랐어요 · 나도 한국사람인데. 사람들이 나를 다르게 보는 게 부담스러워요 · 엄마 나라를 비하하면 마음이 안 좋아요
	다문화정체성 촉진 요인	· 이중언어 구사능력 · 두 문화 습득 용이성	· 엄마에게 배워 엄마모국어 말 할 수 있어요 ·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배울 수 있어요
주변생활 관련	주변생활 만족감	· 친밀한 친구관계 · 친밀한 어머니 · 학교성적 향상 · 특별활동 수업 · 가족 여가 활동	· 친구하고 잘 지내서 학교가 즐거워요 · 엄마하고 사소한 것까지 이야기해요 · 성적이 향상될 때 기분이 좋아요 · 체육, 음악, 미술 활동 할 때 즐거워요 · 가족들과 여행가면 행복하고 좋아요
	주변생활 어려움	· 학습 어려움 · 아버지와 대화 어려움 · 친구관계 어려움 · 어머니 나라 문화 모름 · 자신감 없음	· 공부를 어떻게 할지 막막하고 어려워요 · 아버지하고 서먹서먹해서 대화가 어려워요 · 친구관계를 잘 하고 싶어요 · 엄마 나라에 대해 알고 싶는데 몰라요 · 자신감이 없고 창피함을 많이 느껴요
미래 관련	미래 희망	· 안정적 직업 · 미래 꿈 실현 · 봉사활동 · 편견 없는 시선 기대	· 안정적인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 좋아하는 자동차 관련 일을 해 보고 싶어요 · 미래에 양로원에서 봉사활동하고 싶어요 · 다문화라고 동정심으로 바라보는 거 싫어요

하지만 자신의 다문화 상황을 이해하고 관심을 나타내는 성인에게 고마움을 나타내며 자신이 특별한 존재로 인식되는 부분에 자부심을 나타냈다. 특히 선생님에게 받는 관심은 학교생활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주었다.

“선생님이 일본에 대해 관심이 많으셔서 매일 저랑 일본어로 대화하고 일본에 대해 물어봐주시고 대화를 많이 나누니까 좋아요. 학교에서 제가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참여자 2)

그렇지만 다문화이기 때문에 받는 지나친 관심과 특별한 혜택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나타냈다. 참여자들은 한국에서 태어나 성장한 후 학교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한국학생과 구분하여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경제적 혜택을 받을 때 다름이 부각되는 부분에 부담감을 느꼈다. 이는 다문화 청소년들도 다문화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다문화 혜택을 받음으로 다문화 관련 낙인찍힘에 대한 거부를 확인하였다.

“선생님이 다문화라고 신경을 많이 써 주시는데 그게 싫어요. 신경 안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창피해요. 도움을 받게 되면 내가 다문화인 게 드러나게 되고 친구들이 알게 돼서 싫어요”(참여자 3)

2. 다문화 청소년의 다문화 정체성 자각

주제군 2는 다문화 청소년의 다문화 정체성 자각으로 ‘무관심’, ‘부담스러움’, ‘양가감정’ 주제를 포함하고 있다. 다문화 청소년들은 다른 국가 출신의 부모님 영향으로 양쪽 문화 배경을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다. 이들이 다문화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는지 확인해 본 결과 다문화라는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자라서 고민을 하지 않았다는 참여자들도 있었다. 또한 다문화라는 사실을 초등학교 고학년 때 처음 알게 되었다는 참여자들도 있었다. 이같이 다문화라는 개념이 다문화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지 않고 의식하지 않고 살아온 경우도 있었다.

“한국인인지 다른 나라 사람인지 헷갈릴 때가 없었어요. 나는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말을 하니깐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엄마가 외국인이지만 한국말도 잘하니깐 다문화 가정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참여자 9)

다른 다문화 청소년들은 태어나고 자란 곳이 한국이지만 피부색이 다르고 엄마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외국인 취급 받는 것에 대해 부담스러움을 나타내었다. 참여자들은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말을 사용하고 국적도 한국이며 아버지가 한국인임에도 주변사람들로부터 한국 사람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으로 인식되는 것에 불편함을 표현하였다. 다문화 청소년들은 편견이나 차별로 자신도 인식하지 못했

던 다름에 대해 깨닫게 되면서 마음의 상처를 많이 경험했다.

“나도 한국사람인데 저보고 자꾸 어느 나라에서 왔냐고 물어봐요. 제 얼굴은 외국인처럼 보이지만 제가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에서 살았으니 한국사람이죠...나는 한국인으로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다르게 보는 게 부담스러워요”(참여자 1, 참여자 5, 참여자 7)

일부 다문화 청소년들은 자신이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으나 어머니 나라에 대한 관심과 애정도 동시에 나타내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나라에 대한 거침없는 비난과 공격에 상처를 받으며 마음 아파했다. 이 같이 다문화 청소년들은 두 국가에 대해 복잡한 양가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일본이랑 우리나라랑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아서...그래서...뭐라 그래야 되지? 친구들이 일본 비하 하거나 그러면 좀 별로 안 좋아요... 기분이 안 좋아요”(참여자 4)

3. 다문화 정체성 촉진 요인

주제군 3은 다문화 청소년의 다문화 정체성 촉진요인으로 ‘이중 구사능력’, ‘두 문화 접근 용이성’ 주제를 포함하고 있다. 다문화 청소년들에게 정체성 확립은 발달과정 중 중요한 부

분이다. 한국사회에서 다문화 의미는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기에 다문화 청소년들은 다문화를 드러내기 보다는 숨기며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다문화 청소년들이 다문화를 부끄러움이 아닌 자랑스러움으로 인식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다문화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다문화 강점은 이중 언어 구사 능력과 양쪽 문화 습득 용이성이다. 이중 구사 능력이 가능한 다문화 청소년들은 소수였지만 이중 구사가 불가능한 다문화 청소년들도 앞으로 엄마 모국어를 배우고 싶은 열망을 나타내었다. 이중 구사능력은 다문화 청소년들에게 자신감을 주어 사회에 필요한 재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자원을 제공할 수 있다. 이는 다문화 청소년들이 다문화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만을 갖기보다는 자신들이 가진 이중 언어와 문화의 다양한 가능성이라는 강점을 가지고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엄마가 일본어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자랑스러워요. 아무도 못하는 거잖아요. 저도 할 수 있어요. 남들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좋아요”(참여자 2)

다문화 청소년은 또래 청소년보다 문화에 대한 접근 기회와 접근 가능성이 높아 두 문화에 대한 이해와 지식 습득의 용이함이 높다. 두 문화의 다양한 지식 습득은 다문화 청소년들에게 문화 교류자로 담당할 수 있는 가교역할을 제공할 수 있다.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고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보고 외국전통도 체험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또 엄마에게 영어도 배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참여자 1)

중학생으로 성장한 다문화 청소년들은 성적 향상에 관심이 많았으며 학교 성적이 향상되었을 때 아주 큰 만족감과 기쁨을 나타내었다. 다문화 청소년들은 학업성적에 많은 관심을 나타내었으며 가장 큰 관심사였다.

4. 다문화 청소년 주변생활 관련 만족감

주제군 4는 다문화 청소년 주변생활 관련 만족감으로 ‘친밀한 친구’, ‘친밀한 어머니’, ‘학교성적 향상’, ‘특별활동 수업’, ‘가족 여가 활동’ 주제를 포함하고 있다. 다문화 청소년들은 친구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였으며 친밀한 교우 관계는 학교생활 만족도를 높여주었다. 다문화 청소년들에게 친구관계는 중요한 의미였다.

“친구들과 잘 놀면서 잘 생활하고 있어요. 공부는 어렵지만 친구들과 잘 지내서 학교생활이 좋아요”(참여자 6)

다문화 청소년들은 엄마와 친밀한 대화관계를 유지하며 사소한 사항까지 의논하며 고민을 해결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엄마와 친밀한 대화는 다문화 청소년들에게 높은 만족감을 주었다.

“엄마하고는 시도 때도 없이 맨날 틈만 나면 이야기해요. 자주 대화를 나누다 보니깐 관계가 좋아요”(참여자 2, 참여자 4)

“가장 행복할 때는 성적이 올랐을 때요. 하지만 생각만큼 성적이 오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참여자 4)

다문화 청소년들은 학업에 대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학교생활에서 수업 외의 특별활동 수업 시간 참여에 즐거움을 표시하며 많은 의미를 두고 있었다.

“체육과 음악 할 때 행복하고 살맛나요”(참여자 2, 참여자 3)

다문화 청소년들의 아버지는 농업을 주업으로 삼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시간적 여유와 경제적 여유가 없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가족 여가 활동이 드물었다. 하지만 아주 가끔이라도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여가활동이나 여행활동에 많은 행복감을 나타내었다.

“가족들과 함께 외출하거나 여행 가면 너무 좋아요. 하지만 많지는 않아요”(참여자 2)

5. 다문화 청소년 주변생활 관련 고민

주제군 5는 다문화 청소년의 주변환경 고

민은 ‘학습 어려움’, ‘아버지와 대화 어려움’, ‘친구관계 어려움’, ‘어머니 나라 문화 모름’, ‘자신감 없음’ 주제를 포함하고 있다. 다문화 청소년들은 학습에 대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현실에 답답함을 많이 느끼며 학업 결과가 기대만큼 나오지 않는 부분에 고민이 많았다. 또한 도움을 받고 싶어도 경제적인 여건상 학원에 다닐 수 없는 상황에 답답함을 표현했다.

“공부가 어려워요. 열심히 해야 하는데 열심히 안 되고 이해를 못 하겠어요.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도움을 받을 때가 없어요”(참여자 1)

다문화 청소년들은 아버지와 단절된 의사소통에 답답함을 많이 느끼며 아버지와 대화를 하고 싶어했다. 하지만, 아버지와 대화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려워하였으나 궁극적으로는 이 같은 상황을 극복하고 싶은 간절함을 컸다.

“아버지와 대화를 많이 하고 싶은데 어려워요. 대화를 거의 안 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참여자 5)

아버지와 단절된 의사소통 경험은 인간관계에서 알아야 할 방법들을 배우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리하여 친구관계에서도 의사소통을 어떻게 진행하여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친구 관계를 잘 하고 잘 다가갈 수 있도록 알려주고 관심을 기울여 주면 좋을 것 같아요”(참여자 4, 참여자 9)

다문화 청소년들은 어머니 나라 문화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전혀 없었다. 어머니 나라 문화에 대한 무지를 토로하며 어머니 나라 문화와 언어를 배우고 싶으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을 토로하였다.

“엄마 나라에 가보고 싶어요. 가서 엄마 나라에 대해 알고 싶어요.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누구도 엄마 나라에 대해 알려주지 않아요. 알고 싶어요”(참여자 1)

이같이 어머니 모국에 대한 문화 무지는 다문화 청소년들에게 다문화를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으로 인식하게 하여 낮은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다.

“다문화 친구들은 자신감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엄마가 일본 사람이어서 당당한테 다른 친구들도 저처럼 당당하게 자신감,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신감 가져라. 창피할 것 없다. 이런 식으로 조언 같은 거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참여자 2)

6. 다문화 청소년의 미래희망

주제군 6은 다문화 청소년 미래 희망으로 ‘안정적 직업’, ‘미래 꿈 실현’, ‘봉사활동’, ‘편견 없는 시선 기대’ 주제를 포함하고 있다. 다문화 청소년들은 장래희망으로 적성과 관심보다는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교사와 공무원에 관심을 보이며 금전적인 중요성을 설명하였다. 이는 다문화 청소년들이 직업을 통해 사회 경제적 위치 변화를 기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자신의 노력으로 현재 상황 보다 더 나은 생활을 하고 싶은 기대는 다문화 청소년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는데 동력이 될 것이다.

“선생님이나 공무원이 되고 싶어요. 평생 금전적으로 보장되잖아요. 안정적이고요”(참여자 4, 참여자 9)

하지만 일부 다문화 청소년들은 경제적인 부분만 해결 된다면 자신의 적성과 관심사를 살려 원하는 분야의 일을 선택하고 싶은 열망을 나타내었다.

“음악을 좋아하니 피아니스트나 재즈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경제적인 활동이 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요”(참여자 1)

또한 다문화 청소년들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많은 혜택에 대해 고마움을 표현하였으며, 자신이 받은 혜택을 국가에 돌려주고 싶어했다. 자신도 노인 봉사활동에 참여함으로 사회에서

나눔을 실천하고 싶어했다.

“노인정에서 어른들에게 봉사하고 싶어요. 나도 많이 받았으니 나누고 싶어요”(참여자 2)

다문화 청소년은 주변 사람들이 다문화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지 않기를 기대하였다. 사람들이 편견 있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인식에 불편감을 드러내며 자신을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 바라봐주기를 기대하였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 나를 일반 한국사람 보듯이 똑같이 쳐다봐주었으면 좋겠어요. 다문화 가정이라고 동정심으로 바라보는 거 싫어요. 나도 한국사람인데”(참여자 5, 참여자 6)

7.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교사들의 이야기

다문화 청소년 담당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만나는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견해를 확인하였다. 자기보고식 질문지 실시 후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표 3과 같다.

다문화 청소년 담당 교사들은 한국 출생 다문화 청소년들이 학교에 잘 적응하고 있다고 8명(66.7%)이 보고하였으며 학교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다문화 청소년들이 있다고 보고한 교사들은 2명(16.7%)이었다. 교사들은 한국에서 출생한 다문화 청소년들은 학교생활에 어려움 없이 잘 지내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다문화

표 3.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교사 인식

항목	범주	내용	응답빈도 N(%)
학교 적응	· 잘 하고 있음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활발하게 생활	8(66.7)
	· 보통	관계성은 양호하나 학업문제	2(16.7)
	· 어려움이 많음	부모 관심부족과 정체성 교육 부족	2(16.7)
선생님 관계	· 좋음	다른 아이들과 같이 상호작용이 원활	8(80)
	· 보통	특별하게 대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접근하기 어려움	2(20)
친구 관계	· 좋음	친구들과 활발하게 잘 어울려서 지냄	9(90)
	· 보통	많은 학생과 어울리지 못하고 끼리끼리 지냄	1(10)
어려움	· 학업 문제	가정형편 곤란으로 선수학습이 안되어 학습부진 어려움	5(50)
	· 또래 관계	피부색 다름으로 인한 어려움	2(20)
	· 없음	특별히 없음	3(30)
필요한 도움	· 자신감 증진	엄마와 자신에 대한 긍정적 마인드 제공 필요	6(50)
	· 친구관계	친구관계 맺는 방법 제공	2(17)
	· 부모관계	원활한 부모 관계 유지하는 방법	2(17)
	· 학습도움	학습 방법 지도	2(17)
다문화 프로그램제안	· 다문화 학생만 진행	다름에 대한 차별	0(0)
	· 일반학생과 통합교육 진행	다문화 학생을 보호하고 일반학생도 다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통합교육 필요	10(100)

청소년들은 학교 공부의 어려움, 피부색 차이로 인한 친구관계 어려움을 호소하였지만 교사들은 다문화 청소년들이 교사와 관계를 잘 하고 있다고 8명(80%)의 교사들이 보고하였으며 친구 관계를 잘 하고 있다고 인식한 교사들도 9명(90%)이었다. 교육현장에서 다문화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들이 인식한 다문화 청소년들에게 제공할 도움은 다음과 같다. 다문화에 수치감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교사가 6명(50%)이었으며, 좋은 친구관계 유지 방

법을 지도해야한다는 교사가 2명(17%)였으며, 부모와 원활한 의사소통 방법을 지도해야한다는 교사가 2명(17%)이며, 학습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는 교사가 2명(17%)이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이나 프로그램 진행시 제안 사항은 다음과 같다. 다문화 학생들과 일반학생들을 구별하여 진행하는 것은 다문화 학생들에게 거부감과 반감을 야기하므로 일반 학생과 함께 참여시키는 통합교육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들이 생활경험과 다문화 현상을 어떻게 지각하는지 확인하고자 다문화 청소년에게 심층면접을 실시하였으며, 다문화 청소년들의 생활경험을 교사들이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확인하고자 교사대상으로 자기보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과 노력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기존 연구들은 다문화 아동 대상으로 미숙한 한국어 실력으로 발생하는 언어발달 장애와 학교적응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다문화 가정 자녀들은 학업이나 또래관계, 정체성 형성 모든 면에서 “문제”를 지닌 획일적인 존재로 바라보았다. 이에 본 연구는 다름에 대한 편견을 갖는 차별적 시각이 아니라 차이를 인정하고 다양성을 이해하는 견해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다문화 아동에서 중학생으로 성장한 다문화 청소년들이 생활 경험과 다문화에 대한 경험을 어떻게 지각하는지 개별성과 특수성에 기초하여 살펴보았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다문화 청소년들은 친밀한 교우관계와 학교 성적 향상 시 만족감을 나타냈으며, 학업 곤란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였다. 다문화 청소년들은 친구들의 직접적인 거부에 대한 상처보다는 사회에서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시선에 불편감을 나타내었지만 다문화 청소년들도 다문화를 부정적으로 인식하여 다문화를 창피한 측면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하지만 다문화 청소년들이 보인 이중구사 능력과 두 문화의 가교역할 가능성은 다문화의 긍정적인 측면으로 인식될 수 있다.

다문화 청소년 9명 대상으로 심층면접 실시 후 Colaizzi(1978) 현상학적 연구절차에 따라 진행하였다. 교사 10명을 대상으로 자기보고 설문조사 후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다문화 청소년들 경험은 3개 범주, 6개 주제군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문제인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다문화에 대한 지각을 확인한 결과 다문화 주변 환경 자각, 다문화 정체성 자각, 다문화 정체성 촉진 3개 범주로 나타났다. 다문화 청소년들의 주변 환경 자각을 조사한 결과 피부색 다름으로 인한 배척과 거부에 상처를 느끼며 다문화 청소년들은 스스로 한국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주변에서 한국인으로 인정해주지 않고 거부할 때 혼란스러움을 경험하였다. 이소희와 최운선(2008) 연구에 따르면 다문화 자녀들 대부분은 자신을 한국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음에도 사회에서는 이들을 한국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정지윤과 문성호(2011) 연구에서도 우리 사회는 다문화 청소년들에게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접근하여 이들을 어려움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집단 거부는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었다. 집단 따돌림을 전혀 받지 않았다는 연구 참여자들도 다수 있었다. 또한 다문화 학생들이 인식한 원만한 교사 관계는 학교생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하였다(정현영, 2006). 연구에 참여한 다문화 청소년들도 교사들의 관심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높은 학교 만족도를 나타내었다. 하지만 연구 참여자들은 교사의 과도한 관심과 정부의 각종 경제적 지원에 불편함을 드러냈다. 이창호(2008)

는 면담에 응한 다문화 청소년들은 그들이 다문화 가정 출신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걸 반기지 않으며 일반 한국학생들과 다르게 대우받는 것을 무척 싫어했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다문화 청소년들도 다문화 지원과 혜택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었지만 다문화 지원과 혜택을 받음으로 자신이 다른 친구들과 다르게 인식되는 불편함에 경제적 지원과 과도한 관심을 거부하고 싶어 했다. 이는 다문화 청소년들도 다문화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에서 태어나고 한국에서 성장한 다문화 청소년들은 자신을 다문화로 지각하지 않았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다문화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으로 스스로를 다문화 청소년으로 분류되는 것에 대해 부담스러움을 표현하며 다문화 관련 질문 시에는 경계심을 나타내었다. 다문화 청소년들은 다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자신들이 다문화로 분류되어 낙인찍히고 싶어 하지 않았다. 자신의 다문화 배경을 깊이 이해하고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참여자들은 드물었다.

다문화 청소년들이 지닌 다문화의 긍정적 측면은 이중언어 구사능력과 문화 교류자로서의 역할 가능성이다. 다문화 청소년들은 외국어가 가능한 엄마에게 언어를 배울 수 있어 이중 언어 구사 능력이 가능하며, 다문화 어머니를 통해 어머니 나라 문화 습득과 한국 문화 습득을 통해 두 문화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다. 연구 참여 다문화 청소년들은 외국어가 가능한 엄마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였으나 엄마에 대한 자부심은 엄마가 사용하는 언어

가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국제화 시대에 필요한 언어이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필리핀 공용어 따갈로그어에 대한 자부심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중 언어가 가능한 다문화 청소년은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다(이소희, 최운선, 2008). 또한 다문화 청소년들은 다문화 행사나 엄마와 관련된 모임에 자연스럽게 참여하여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는 과정을 통해 두 문화 습득이 용이하다. 이와 같이 다문화 청소년들이 다문화를 경험하고 이중 언어에 자연스럽게 노출될 가능성을 중요한 역량 중의 하나로 바라보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양계민, 조혜영, 이수정, 2009; 정지윤, 문성호, 2011). 그러므로 다문화 청소년들은 다양한 문화 수용성과 언어 수용 가능성이 많이 내재되어 있어 긍정적인 자원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연구문제인 다문화 관련 주변 환경 자각은 주변생활 만족감, 주변생활 어려움으로 2개 주제군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청소년들의 주변생활을 통한 만족감은 친밀한 교우관계로 생활만족도와 학교생활 만족도를 향상시켜주었다. 최성보(2011)는 다문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교현장 적응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하였으나 초등학교를 거쳐 중학교에 입학한 연구 참여자들은 학교 적응을 잘 하며 학교생활 만족감이 높았다. 또 다른 연구에서도 다문화 자녀들이 친구 관계에서 따돌림을 당하거나 제한적인 인간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였으나(설동훈 외, 2005; 오성배, 2005)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따돌림을 당하는 비율은 일반아동들의 비율과 다르지 않다고 한다(설동훈 외, 2005). 본 연구에 참여한

다문화 청소년들도 초등학교 시기에는 친구들의 따돌림을 경험한 경우도 있었지만 중학교 진학 후에는 따돌림 경험이 전혀 없다고 하였다. 이 같은 이유는 다문화가 빨리 시작된 농촌지역에서 다문화 친구들과 초등학교 때부터 함께 성장한 동료친구들이 초기에는 다문화 친구에게 편견을 나타냈으나 지속적인 관계 경험을 통해 다름보다는 같음을 인식하며 중학생으로 성장한 후에는 거부나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긍정적인 친구관계가 형성될 수 있었던 또 다른 요인은 다문화 청소년들의 성격적인 부분과 관련이 있다. 면접에 참여한 다문화 청소년들은 활발한 성격으로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친구들에게 즐거움을 제공하여 친구 사이에서 인기가 높아 원활한 친구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 같은 성격적 요인은 친구관계에서 차별을 경험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친밀한 친구관계는 학교생활에 만족감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지윤과 문성호(2011)의 연구에서도 친구관계 만족감은 학교생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으로 작용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농촌 거주 다문화 청소년들이 지각한 어머니와 관계는 많은 대화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필리핀과 태국 출신 어머니들의 한국어 실력이 일본이나 중국 출신 어머니들보다 낮음에도 자녀와 대화를 더 빈번히 함으로 어머니와 자녀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다는 미래인력연구원(2005)의 연구 결과와 같이 한국어 실력보다는 자녀와 대화를 시도하고자 하는 빈도가 자녀 관계성에 중요한 역할을 함을 알 수 있다.

농촌 거주 다문화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주

변생활 어려움은 학업적인 어려움이었다. 다문화 청소년들은 경제적인 상황으로 사교육을 받을 수 없는 현실을 인정하지만 개별적인 학습 지도를 통해 높은 성적을 받고 싶어 했다.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양미진 등(2012)의 연구에서 다문화 중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은 학업문제로 나타났으며 김교정과 정규석(2008)도 한국출생 다문화 청소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도움은 학습지도라고 보고하였다(양계민 등, 2009). 이와 같이 다문화 청소년들은 학업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었으며 성적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이는 다문화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많은 일들을 하며 노력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어머니에게 보답하고 싶은 마음으로 어머니가 자신에게 거는 학업 기대를 충족시키고 싶지만 생각만큼 나오지 않는 학업 결과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또한 다문화 청소년들은 농업에 종사하는 아버지와 단절된 대화에 답답함을 호소하며 아버지와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방법을 알고 싶어 했다.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자녀들이 지각한 아버지 대화는 어머니 대화에 비해 4분의 1수준으로 낮게 나타나 다문화 자녀에 대한 아버지 역할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밝혀졌다(이재분, 강순원, 김혜원, 이혜영, 서유미, 2008). 본 연구의 참여자들도 어머니와 대화에는 만족감을 표현했으나 아버지와 대화는 불만족을 표현하였다.

셋째 연구문제인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의 미래관련 자각은 미래희망 1개 주제군이다. 농촌 거주 다문화 청소년들의 미래희망 직업은 적성 관련 직업보다는 경제적인 측면을 우

선순위로 생각하여 교사와 공무원을 선호했다. 이는 현재 자신들이 농촌에 거주함으로 주변인으로 전락한 현실에서 사회 중심인으로 변화하여 사회적 역할을 담당하고 싶은 기대를 나타내었다. 이 같은 미래에 대한 기대는 직업적 성취를 통해 가족의 기대 충족과 자신의 사회적 성공을 기대하였다. 그 때문에 다문화 청소년들이 어려운 학업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높은 학업성취를 달성하고자 학업에 열중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문화 청소년들이 사회에 가장 기대하는 바는 자신들을 편견 없는 시선으로 바라보며 한국인으로 인정해주시기를 희망하였다.

다문화 청소년들에 대한 교사 인식을 확인하고자 자기보고 설문조사 실시 후 분석한 결과 다문화 청소년들은 대부분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며 교우관계도 잘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다문화 청소년들은 다문화를 창피하고 수치스럽게 생각하여 자신에 대한 낮은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아버지와 원활하지 않은 의사소통 방식으로 인간관계에서 습득해야 할 대화 방법들을 몰라 교우관계 의사소통에 문제를 보이고 있음을 제기하였다. 교사들은 다문화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진행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제안하였다. 다문화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진행시 다문화 학생만을 위한 프로그램은 참여자들에게 상처가 되며 다름을 부각시키는 차별이 되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따라서 다문화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이나 프로그램은 일반학생들과 같이 진행하는 것이 다문화 청소년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으며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다문화 청소년들의 생활경험 지각을 확인한 결과 이들은 사회에서 편견 없는 시선으로 자신을 한국인으로 인정해주고 다문화 혜택 제공 시 수혜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연구 의의는 다문화 청소년들과 다문화 담당 교사 이야기를 심층 분석하였으며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청소년들은 학업적인 도움을 받고 싶어 하지만 농촌지역에서는 현재 학습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다문화 청소년들을 위한 교사들의 지도가 어렵다면 지역 센터와 연계하여 학습 지도를 제공하거나 학습지원 멘토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연구결과를 통해 다문화 청소년들은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언어에 많이 노출되어 있으며 다문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측면들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 청소년들이 자신의 다문화적 출신배경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셋째, 다문화 아동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많이 있지만 다문화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은 미비한 실정이다. 다문화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한국어 능력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대다수이다. 그러므로 다문화 청소년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이중 언어에 대한 강점과 자신들의 강점들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넷째, 다문화 청소년들만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닌 일반 청소년들과 같이 참여하여 상호 교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진행이 필요하다. 다문화 청소년들만을 위한 프로그램은 참여자들에게 또 다른 차별을 느끼게 할

수 있다.

다섯째, 다문화 시대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국가관이 필요하다(Witting, 2008). 우리 사회도 앞으로 진행하는 다문화 정책 목표에서 일방적 동화 강조(김혜순, 2006)가 아닌 다문화 문화 존중과 다양성 인정을 존중하는 사회통합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름을 규정지어 차별하고 획일적인 정책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차이를 인정하고 다양성을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 청소년의 생활경험 현상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다문화 청소년에 관한 논의는 다문화 청소년을 단일한 집단으로 규정하고 일괄적인 정책을 만들어내는 데서 벗어나 다문화 청소년의 개별성과 특수성에 초점을 맞추어 다문화 청소년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다름을 명명하고 규정지어 편견을 갖기보다는 문화 차이를 인정하고 다양성을 이해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요구된다.

하지만 본 연구의 한계점은 농촌지역에 거주하며 한국에서 태어난 다문화 청소년들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 청소년들과 여러 유형의 다문화 청소년들에게 일반화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농촌에 거주하는 다문화 청소년들의 경험이 다른 지역 다문화 청소년들에게도 적용되는지, 중도 입국청소년, 외국인 노동자 청소년과 같은 유형의 다문화 청소년 경험을 탐색하는 후속 연구들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 (2013). 다문화 청소년 현황 자료. <http://kostat.go.kr/portal>에서 2013년 7월 1일 인출.
- 김교정, 정규석 (2008). 다문화청소년 성장환경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콘텐츠학회*, 8(11), 272-285.
- 김근영, 박금주, 배소영 (2009). 다문화가정 연구개관과 향후 방향성.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8(3), 571-597.
- 김순균 (2011). 다문화가정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 *청소년학연구*, 18(3), 247-272.
- 김이선 (2009).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정책의 과제. *젠더리뷰*, 가을호, 11-18.
- 김혜순 (2006). 한국의 다문화 사회 담론과 결혼이주여성. *한국사회학회 기타간행물*, 47-48.
- 노충래, 홍진주 (2006). 이주노동자 자녀의 한국사회 적응실태 연구: 서울경기 지역 몽골 출신 이주노동자 자녀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회*, 22, 128-159.
- 미래인력연구원 (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방안. 보건복지부.
- 설동훈, 김운태, 김현미, 윤홍식, 이해경, 임경택, 정기선, 주영수, 한건수 (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방안. 미래인력연구원·보건복지부 용역연구보고서.
- 신경림, 조명옥, 양진향 (2005). *질적연구방법론*.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양계민, 조혜영, 이수정 (2009). *미래한국사회*

- 다문화역량강화를 위한 아동청소년 중장기 정책방안연구 I: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역량 개발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양미진, 이동훈, 고흥월, 고영하, 남현주 (2012). 현장전문가가 지각한 다문화 청소년 상담의 특성에 대한 질적분석. 상담학연구, 13(3), 1181-1209.
- 양순미 (2006). 농촌 국제결혼부부의 적응 및 생활실태에 대한 비교 분석: 중국, 일본, 필리핀 이주여성 부부 중심. 농촌사회, 16(2), 151-192.
- 양순미 (2007). 농촌지역 다문화가족의 초등학교의 학교생활적응과 가족생활행복에 작용하는 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2(4), 559-576.
- 여성가족부 (2013). 국제결혼 현황 자료. <http://www.index.go.kr/egams/stts/jsp>에서 2013년 7월 5일 인출.
- 오성배 (2005). 코시안 아동의 성장과 환경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교육, 32(3), 61-83.
- 유 룡 (2008). 우리나라 다문화 청소년의 실태와 문제점에 관한 연구. 청소년보호지도연구, 13, 31-53.
- 이소희, 최운선 (2008).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문화정체감과 사회적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3(3), 163-185.
- 이영주 (2009). 다문화 가족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4(2), 103-119.
- 이재분, 강순원, 김혜원, 이혜영, 서유미 (2008).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실태 연구: 국제결혼가정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 이창호 (2008). 국제결혼가정 청소년의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지, 6(1), 3-15.
- 전경숙, 정기선, 이지혜 (2007). 다문화 교육 정책방안 연구.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 정은희 (2004). 농촌지역 국제결혼 가정 아동의 언어발달과 언어환경. 언어치료연구, 13(3), 33-52.
- 정일선 (2006). 국제결혼 가족 및 아동 실태조사. 경북여성정책개발원.
- 정지윤, 문성호 (2011).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생활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청소년학연구, 18(8), 265-289.
- 정혜영, 정옥분 (2011).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이 아동의 학교 준비도에 미치는 영향. 인간발달연구, 18(2), 277-297.
- 정현영 (2006).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아시아 여성과 한국남성의 이중 문화 가정 자녀를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주영신, 이민창 (2012). 대학생의 다문화 청소년 및 정책인식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9(1), 77-102.
- 최성보 (2011).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 탐색. 다문화교육연구, 4(2), 105-130.
- Chavez, D. V., Moran, V. R., Reid, S. L., & Lopez, M. (1997). Acculturative stress in children: A modification of the SAFE scale.

- Hispanic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s*, 19(1), 34-44.
- Colaizzi, F. E. (1978).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logical views it. In R. S. Valle, M. King, R. May (Eds.), *Existential phenomenological alternatives for psychology*(pp.150-380).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Witting, M. A. (2008). Adolescent' ethic and national identity relationship in the multicultural classroom. *Symposia at 2008 Convention of the society for the Psychological Study of Social Issue*. June 27-29. Chicago. IL. U.S.

1 차원고접수 : 2013. 07. 15.

수정원고접수 : 2013. 08. 19.

최종게재결정 : 2013. 09. 02.

A Qualitative Research into the Life Experience Perceptions of Multicultural Youth: A Focus on the Rural^{*}

Park, Eun min

Dept. of Psychology Counseling, Dongshi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life experiences of multicultural youth who were born in small rural cities and the teachers who teach these youth.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9 multicultural youth and self-reported questionnaires were given to 10 teachers of multicultural youth. This study is an attempt to understand multicultural youth from an unbiased perspective and respecting their cultural diversity and recognize the cultural differences. The data thus gathered were analyzed using Colaizzi's phenomenological method and the teacher data were analyzed based on contents analysis. The perception of life experience of the cultural youth revealed 3 final categories, 6 clusters themes, and 22 clusters. The final 3 categories consist of 'cultural', 'life', 'future'. According to the teachers for multicultural youth, multicultural youth experienced some degree of difficulty in school life, relationships with both teachers and peers but adapted well. Support plans for multicultural youth include teaching them ways to promote self-confidence, how to relate to and so as how to relate to their parents. Based on these results, the findings will provide some useful information about how to best provide future support to multicultural youth policy and accompanying plans.

Key words : multicultural youth, the perception of life experience, cultural diverse, phenomenological method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NRF-2012S1A5A8024110).